

중국, 한약재 급속 고갈

중국의 한약재가 고갈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무분별하게 수출돼 고갈의 위기에 빠진 한약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약재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중국은 재배한지 15년 이상이 지나야 의약품으로 활용이 가능한 두충에 대해 수출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충은 수급조절 품목으로 지정돼 있는 한약재로 우리나라에서도 재배되고 있어 중국이 당장 수출을 금지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한약재 수급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수출금지 명령을 타품목으로 계속 확대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약재를 재배 연구하고 있는 함양 약초시험장 김만배 품질연구이용실장은 『두충 뿐만 아니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감초도 이 약재의 특성상 재배한 지역이 사막화해 중국에서 점점 그 재배량이 줄어들고 있어 머지않아 수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해 이같은 수출금지 조치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입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및 잔류농약 기준도 날로 강화되고 있어 중국산 한약재의 수입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토양이 약산성인데다 여름 한철에만 강우가 집중돼 있어 식물의 생존 조건은 좋지 않으나 중금속이 쌓여 한약재로 침투할 우려가 적은 반면에 중국은 구름지나 평야의 경우 수천년간 누적된 퇴적층으로 말미암아 중금속의 오염은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농산물에 대한 수입이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로 보아 중국산 한약재는 점

차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한약재는 30여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한약재에 대한 재배 확대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중국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중국은 한약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못했으나 최근에서야 경제호전 등에 힘입어 한약의 소비량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은 10년안에 한약재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한의학의 중요 치료수단인 한약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에서의 한약재 재배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원고를 기다립니다

양록분야에 몸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한국양록」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체험수기, 수필, 썰, 실무기, 연구논문, 기획기사, 여행기 등을 보내주시면 「한국양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양록」을 보고 하고 싶은 말씀, 기획 아이디어 제공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록인과 함께 하는 「한국양록」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내실곳 :

☎130-071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1동 26-14

경동프리자 426호 한국양록협회

「한국양록」담당자 앞

TEL : 969-6600 (대표)

FAX : 969-7115